

지역 농업 발전 · 관광사업 추진 협력

전주시-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안전 강화 · 이중호수 관광명소화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안전한 농업기반 조성과 저수지 자원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이중호수와 기지 등 저수지를 활용한 관광사업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주시가 민선8기 중점 추진하는 이중호수 관광명소화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전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지난 1일 전주시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정문 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성 개선과 이중호수 등 저수지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주시역 농업기반시설 안전성 개선에 5년간 총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지역 농업인의 영농편의 증진을 위해 노후화된 교량·농로·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함께 보수하고, 가드레일과 난간 등의 안전대책시설도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도심수 주변공원으로 자리매김한 덕진구



전주시와 농어촌공사가 상생발전 업무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만성동 일원 기지 등 저수지 자원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질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해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왕의 공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은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로와 농수로, 교량, 저수지 등 전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영농 편익을 증진시키고,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전주시와의 상호 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전주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안전은 물론, 저수지 등 수자원을 활용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시작으로 양 기관이 전주시의 농업과 관광을 살찌우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원광 모자원측에 '태양광'을 기부하는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SG경영 실천 태양광 설비 기부

예담엔지니어링, 원광모자원에 2000만원 상당 시설 설치

전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 온 (주)예담엔지니어링(대표 김장관)이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후원했다.

지난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주)예담엔지니어링은 최근 결수록 부당이 커지는 전기요금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광모자원에 2000만 원 상당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원광모자원은 한부모가족의 기본 생계 보장 및 보호 환경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시설 입주를 통해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자립 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욱기 기자

원광모자원 원장은 "지속적인 관심이 소외이웃에게는 큰 도움이 되며, 도움을 준 전주시와 (주)예담엔지니어링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한부모들이 생활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예담엔지니어링은 취약계층을 위한 쌀, 마스크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산업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및 전주시 에너지전환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 1일 전주시역 개선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전주역 개선사업 현장점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가 지난 1일 전주시역 개선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전주역은 총사업비 450억 원을 들여 42년 만에 새 단장을 준비 중이다. 박선전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현장사무소 현황브리핑을 시작으로 임시주차장과 후면주차장 등 현장을 두루 살펴며 이용객 수

에 비해 부족했던 주차장과 편의시설의 조성 상황과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박 위원장은 "전주역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제일 처음 보는 전주의 얼굴이므로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와 진행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 또한 높이는 전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각양각색 전주 도서관 홍보

한국도서관협회 관계자 초청 도서관여행 · 상생 · 발전 간담회 가져

전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1박 2일 동안 광승진 회장을 비롯한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직원 31명을 초청해 책의 도시 전주에서 즐기는 '나들이 마당'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가 전국 최고의 책의 도시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독서생태계 관계자를 초청해 각각의 특색을 담고 있는 전주 곳곳의 도서관을 홍보하고, 상생 · 발전 간담회를 통해 전주시 독서문화 정책 방향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획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직원들은 첫날 도서관 여행해설사와 함께 △아트북과 희귀 예술도서관 △전주의 정체성과 한국적 아름다움을 담은 '연화정도서관' △공간 혁신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책놀이터로 탈바꿈한 '금암도서관'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김욱기 기자

이어 둘째 날에는 △공공청사 로비를 열린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전주시청 1층 '책기둥도서관'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공간인 '한옥마을도서관' △도시의 다양한 기억이 공존하는 '전라감영' △4개의 예술 공간을 자랑하는 예술전문도서관인 '서화예술마을도서관' 등 각양각색의 도서관을 탐방했다.

특히 시는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직원들과의 상생 · 발전 간담회를 통해 이틀간의 전주 도서관 여행을 통해 책의 도시 전주의 발전 가능성과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상생 · 발전 간담회를 통해 얻어낸 정보들을 전주시-한국도서관협회 간 상생발전이 필요한 정책개발과 경영력 있는 도서관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 체류 관광객 유치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아동 정책참여단 활동 성과공유회 개최

온라인 제안내용 · 시정 주요 정책체험 활동내용 등 공유

전주시는 지난 2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2023년 전주시 아동 정책참여단 참여아동과 대학생 멘토 등 과 함께 올 한해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올해 아동정책참여단 활동 영상 시청 △우수활동조표창장 수여 △조별 분임토의를 통한 활동 내용 공유 △내년 활동 아이디어 제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아동정책참여단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아동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전주에 거주하는 8~13세 아동 40명과 대학생 멘토 7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불편 사항 모니터링 및 의견 제안 활동을 펼쳤다.

특히 아동정책참여단은 대학생멘토의 자문을 받아 아동을 위한 정책발굴

활동을 펼쳤으며, 대표적으로 △스쿨존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 강화 △놀이터 시설 불편사항 건의 △어린이공원 흡연금지 표지판 설치 등의 제안의견을 해당부서에 전달하여 아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날 성과공유회에서 제시된 아동들의 정책 체험 결과 및 생활 속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장은 "전주시는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 4대 기본권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동정책과 아동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정책참여단이 보내준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의 참여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